

심층분석보고서

26상_롯데건설_안전

마감일: 6월17일23시00분

| 노영우 컨설턴트 & 취업 플랫폼 '룩센트'

롯데건설 안전 직무

1장: 산업(섹터) 분석

1-1. 산업의 정의와 피라미드형 시장 구조

한국 건설산업은 건설업(종합건설과 전문건설)과 건설용역업(설계, 엔지니어링, 감리)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13~14%를 차지하는 내수 기반 핵심 산업입니다. 종합건설은 토목, 건축, 플랜트, 조경 등으로 구분되며, 발주 형태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뉩니다. 시장 구조는 시공능력평가(시평) 상위 대형사가 대형·고부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중견·중소사가 지역·소규모 공사를 담당하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7월 말 전국 약 7만3,65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며, 이 평가 결과는 입찰 자격, 시공사 선정, PF 책임준공 능력 검토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안전 직무 지원자가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안전관리 책임이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바로 이 산업 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1-2. 구조적 침체 — '저성장·고비용·고위험'의 복합 위기

2026년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경기순환의 저점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감소했고, 2025년에는 약 9% 줄었습니다(분기별 -13.3%, -11.4%, -8.2%).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연구위원은 2025년 11월 '2026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2025년 건설투자가 약 9.0%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머물고, 2026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설기성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건설업 취업자 수도 같은 기간 줄었습니다. 미분양은 2021년 말 1만7,710가구에서 2024년 말 7만173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외형 축소 국면에서도 안전 규제와 안전 투자 요구는 오히려 강화되는 역설이 산업의 핵심 특징입니다.

1-3. PF 위기 — 산업 재무 리스크의 진원지

부동산 PF 부실은 산업 최대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1·2차 사업성평가 기준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23.9조원이며, PF대출(120조1,000억원) 연체율이 4.49%로 전 분기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체율은 2021년 말 0.37%에서 2022년 말 1.19%, 2023년 말 2.70%, 2025년 3월 4.49%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PF 구조상 시행사가 차주이고 건설사가 연대보증과 자금보충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기 때문에, 분양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됩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점검회의에서 2027년부터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시행능력평가제 도입 등 PF 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외형 확장형 사업이 끝나고,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는 환경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4. 안전 규제의 대전환 — '산재와의 전쟁'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산업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에도 건설업 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년 1분기까지 총 사망자 1,968명 가운데 건설업이 991명으로 50.35%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됐습니다.

2026년 현재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신속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발표한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사고 사망자는 113명으로 전년 대비 17.5% 감소했고, 이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 50인 이상 517개사 중 49.9%가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아, 근로시간 규제(25.0%)와 환경 규제(15.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장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1-5. 감독 강화와 법령 개정 — 2026년 제도 환경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르면 감독 대상이 전년 5.2만 개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개소로 대폭 늘어났고, 산업안전 감독관도 2025년 895명에서 2026년 2,095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한편 2026년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전액 계상할 수 있게 돼 디지털 안전 투자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법원 판결 동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 5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원청이 무죄를 받은 첫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재해 발생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 인과관계가 법리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6. 가치사슬과 디벨로퍼 전환, 그리고 디지털 안전

건설 가치사슬은 '기획·부지매입, 설계·인허가, 자금조달(PF), 시공, 분양·운영'으로 이어집니다. 도급(시공)은 마진이 낮아 대형사들은 기획부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디벨로퍼(개발업자)로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자체개발은 고수익이면서 동시에 고위험 구조여서, PF 경색 국면에서 오히려 부메랑이 됐습니다.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 건설인력 고령화, 숙련공 부족, ESG 요구에 대응해 탈현장 시공(OSC, Off-Site Construction)과 스마트 건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CCTV, IoT 센서, 지능형 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안전기술은 근로자 위험행동 관찰 등 안전관제(49%) 목적에 집중돼 있고 안전관리업무 효율화(2%)나 안전설계(1%) 적용은 빈약해 사후대응형이라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이는 안전 직무 지원자에게 데이터 기반 예방형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으로, 안전 직무 지원자는 건설산업이 침체기에 있으면서도 안전 규제는 역대 최강으로 강화되는 역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회사가 수주와 매출로 고전하는 와중에도 안전 투자와 안전 인력의 중요성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안전사고 1건이 과징금, 영업정지, 신인도 평가 감점으로 이어져 회사 생존과 직결된다는 논리는 안전 직무의 경영 기여도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2025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구도

2025년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위 삼성물산(34조7,219억원), 2위 현대건설(17조2,485억원), 3위 대우건설(11조8,969억원), 4위 DL이앤씨(11조2,183억원), 5위 GS건설(10조9,454억원), 6위 현대엔지니어링(10조1,417억원), 7위 포스코이앤씨(9조8,972억원), 8위 롯데건설(7조4,020억원), 9위 SK에코플랜트(6조8,493억원), 10위 HDC현대산업개발 순입니다. 롯데건설은 8위를 유지했습니다. 표현하자면, 시평 1~2위와 3~8위 사이에는 매출 규모와 해외·플랜트 비중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롯데건설은 국내 주택·건축을 주력으로 하는 중상위권 그룹에 속합니다.

2-2. 경쟁사 비즈니스 모델과 강약점

삼성물산 건설부문(1위)은 해외 매출 비중이 과반(46.7%)이며 하이테크(반도체)와 플랜트의 강자입니다. 2025년 영업이익률은 3.8%로, 대형 프로젝트 종료로 매출과 이익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현대건설(2위)은 원전·에너지 모멘텀과 95조원대 수주잔고를 보유하며, 2024년 대규모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뒤 2025년 6,530억원 흑자로 전환했으나 현대엔지니어링 본드콜(약 2,200억원)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대우건설(3위)은 주택 편중 구조와 토목 강자라는 양면을 가지며, 2025년 영업이익률 -10.1%로 적자 전환했는데 이는 대규모 손실을 미리 반영한 결과입니다. DL이앤씨(4위)는 재무안정성과 원가율 관리의 모범으로 2025년 영업이익 3,870억원, 영업이익률 5.2%를 기록했습니다. GS건설(5위)은 주택·건축 편중이지만 검단 사태 이후 원가율을 회복하며 2025년 영업이익 4,387억원을 올렸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10위)은 주택·건축 비중이 85.5%로 매우 높으나 2025년 영업이익률 6.0%로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보였습니다. 업계 전반은 2025년 '외형 축소 속 수익성 양극화'로 요약되며, 원가율 정상화와 자체사업 매출 확대에 성공한 기업이 수익성을 회복했습니다.

2-3. 롯데건설의 포지셔닝

롯데건설은 주택 브랜드 '롯데캐슬'과 하이엔드 '르엘(LE-EL)'의 인지도,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 시공으로 입증한 초고층 기술, 그룹 계열사 일감을 바탕으로 양호한 사업기반과 수주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공사실적 기준 토목건축 7위(5조8,383억원), 건축 6위(5조2,269억원)인 반면 토목은 10위(6,114억원)로, 주택·건축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주요 건설사 가운데 주택 매출 비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이는 주택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약점인 동시에, 도시정비와 하이엔드 주거에서 브랜드 프리미엄을 확보했다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2-4. PF 우발채무 축소와 재무 반등 — 최근 1~6개월 핵심 이슈

2022년 말 약 5.7조원에 달했던 PF 우발채무는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2025년 말 보증금액 3조6,021억원이던 우발채무는 2026년 1분기 말 3조3,908억원으로 줄었고, 신용보강 기준으로는 2조원대 후반(약 2조9,700억원)까지 내려와 자기자본(3조5,249억원)을 밑도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3월 조성한 2.3조원 규모 '프로젝트 샬롯' 펀드로 만기를 2027년 3월까지 장기화한 것이 자금 압박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회사 측은 우발채무를 자기자본 이하인 2조원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며, 후순위 보증했던 광주 쌍령근린공원 조성 사업(6,300억원)이 본 PF로 전환되는 등 우발채무 현실화 위험이 일부 해소되고 있습니다.

2-5. 신용등급, 신종자본증권, 그리고 그룹 리스크

2025년 6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는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 (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CP-전단채를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유는 과중한 PF 우발채무, 높은 원가율(2024년 93.5%, 2025년 1분기 95.4%), 지방 분양 침체였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 롯데건설은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 30년 만기, 금리 5.8%)을 발행했으며, 호텔롯데(4,000억원)와 롯데물산(3,000억원)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신평사들은 3년 후 콜옵션 미이행 시 금리가 8.3%로 급등하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가산돼 최대 10.8%에 이르는 구조여서 근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2024년 11월 롯데그룹 전체 유동성 위기설과 모회사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 사태가 겹쳤으나, 그룹 차원의 자산 매각과 재무특약 조정으로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실적 반등은 이러한 재무 방어가 자체 현금창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첫 신호로 해석됩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로, 롯데건설이 PF 리스크를 그룹 지원과 신종자본증권으로 방어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2026년 들어 원가율 개선과 영업이익 급증이라는 실질 성과로 진입했다는 흐름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렵게 회복 중인 재무 신뢰가 안전사고로 인한 과징금이나 평판 훼손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안전 직무가 회사 재무 안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사업 구조와 부문별 매출 비중

롯데건설 매출은 2021년 5조원대에서 2022년 5조9,443억원, 2023년 6조8,111억원, 2024년 7조8,632억원, 2025년 7조9,099억원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사업부문별로는 국내 건축이 전체의 약 3분의 2(2025년 5조2,976억원), 국내 플랜트가 약 15%(2025년 1조2,489억원)를 차지합니다. 분기 기준 주택 비중은 더 높아, 2025년 2분기에는 주택이 전체의 59%(1조1,537억원)였고 플랜트(3,561억원), 건축(2,007억원), 토목(1,587억원), 해외(709억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체공사 매출은 2025년 4,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3.2% 증가해 개발이익 확보형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롯데건설 내부에서 '건축'이라는 부문이 일반 비주거 건축과 주택(아파트)을 함께 포괄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은 분양 경기와 도시정비 수주에 직결되는 반면, 플랜트는 그룹 계열사(롯데케미칼 등) 발주와 석유화학 EPC에 연동되므로, 안전관리의 현장 특성과 위험요인도 부문별로 크게 다릅니다.

3-2. 2026년 실적 반등 — 수익성의 V자 회복 시작

영업이익은 2021년 4,296억원에서 2022년 3,608억원, 2023년 2,595억원, 2024년 1,695억원, 2025년 1,054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7.7%, 6.1%, 3.8%, 2.2%, 1.3%로 하락했습니다. 2021~2022년 고원가기에 착공한 프로젝트와 일부 사업장 대손상각비 선반영(2025년 1,589억원)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분기 들어 흐름이 반전됐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1조6,012억원, 영업이익 504억원, 당기순이익 171억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1조7,934억원보다 10.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38억원에서 466억원 늘며 1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원가율은 95.4%에서 91.7%로 3.7%포인트 낮아졌고, 부채비율도 2023년 말 265%에서 2024년 196%, 2025년 186.7%로 개선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롯데건설이 위험 축소, 수익성 회복, 신용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회사는 2026년을 본격적인 실적 반등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전략 방향 — 오일근 대표의 '질적 성장'

2026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롯데그룹은 CEO 20명을 교체하고 사업군(HQ) 체제를 폐지했으며, 롯데자산개발 대표 출신 오일근 부사장을 롯데건설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오대표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을 통한 포트폴리오 재편, 안전·준법 경영의 엄격한 준수를 핵심으로 내세웠으며, 개발 기획과 아파트 브랜드에 강점을 지닌 인사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2026년 경영 슬로건은 '경영체질 강화'와 '질적 성장'입니다. 회사 비전은 'Asia Top 10 Construction Value Creator'이며 'Vision 2030'을 추진합니다. 안전 직무 지원자가 주목할 점은, 신임 대표가 안전·준법 경영을 수익성·개발사업과 나란히 핵심 경영 축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안전이 비용이 아니라 회사 전략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4. 차별화 포인트 — 르엘 브랜드와 초고층, 그룹 연계

롯데건설의 차별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롯데캐슬과 르엘 브랜드입니다. 잠실 르엘(1,865세대, 2026년 1월 입주)은 청약 경쟁률 최고 761.74대 1을 기록했고, 청담 르엘은 국민평형 실거래가 6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롯데건설의 2025년 도시정비사업 신규 수주는 2조9,521억원이며, 신용산역복측 제1구역(3,522억원), 상계5구역(4,257억원), 부산 연산5구역(7,017억원), 구운1구역(3,524억원), 부산 가야4구역(7,034억원), 가락1차 현대 재건축(4,167억원)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초고층 기술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성수4지구(지하 6층~지상 65층, 1,439가구, 공사비 1조3,628억원) 수주전에서 르엘을 앞세워 '맨해튼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대우건설과 2차 입찰까지 가는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셋째, 그룹 계열사 일감과 롯데타운화 전략입니다. 롯데쇼핑, 롯데호텔 등과 연계한 복합개발과 플랜트 부문의 롯데케미칼 연동 EPC가 안정적 수주 기반을 제공합니다.

3-5. 리스크 요인 — 재무, 분양, 안전 평판

리스크는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절대 규모로는 여전히 대형 건설사 중 높은 수준인 PF 보증 잔액입니다. 둘째,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분양 침체입니다. 셋째,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과 유동성 장기부채(2026년 1분기 말 1조4,703억원)로 대표되는 단기 유동성 부담입니다. 넷째, 영업현금흐름 변동성입니다. 다섯째, 안전사고 평판 리스크입니다. 2025년 9월 김해 아파트 현장 굴착기 사망사고를 포함해 시공 현장에서 최근 5년간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의 사망자는 9명으로 대우건설(12명), 한국전력·현대건설(각 11명)에 이어 DL이앤씨와 공동 4위 수준입니다. 김해 사고 당시 박현철 전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는 곧바로 경영진 책임론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2026년 4월 롯데건설은 인력 효율화를 위한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로, 롯데건설이 잠실 르엘과 성수4지구 등 하이엔드 정비사업으로 외형을 키우는 만큼 대형·고난도 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다는 점을 안전 직무와 연결하면, 회사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롯데그룹 핵심가치의 최신성 검증 (2026년 기준)

기업 인재상은 시즌마다 표현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최신성 검증이 필수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롯데 공식 채널을 교차확인한 결과, 롯데그룹은 4대 핵심가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인재상이 아닌 현행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4대 핵심가치는 Beyond Customer Expectation(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 창출), Challenge(업무의 본질에 집중하며 끊임없는 도전으로 더 높은 목표 달성), Respect(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원칙 준수를 기반으로 신뢰 공동체 지향), Originality(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과 틀을 깨는 혁신)입니다. 이 가운데 Respect의 '원칙 준수'와 Challenge의 '본질 집중'은 안전 직무가 요구하는 자질과 직결됩니다.

4-2. 롯데건설 인재상과 비전 체계

롯데건설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에 더 높은 가치를 두며, 자신의 성장과 함께 사회를 성숙시켜 나갈 열정과 책임감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찾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인재 유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자율성과 환경 적응력,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진취적인 자세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인재'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유능한 인재'입니다. 이 인재상은 2026년 채용 시점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롯데건설 핵심가치는 그룹과 동일한 Beyond Customer Expectation, Challenge, Respect, Originality이며, 경영방침은 투명경영, 핵심역량 강화, 가치경영, 현장경영입니다. 특히 '현장경영'이라는 방침은 안전 직무가 본사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직무라는 점과 맞물려 의미가 큼니다.

4-3. 조직 문화 — '상호존중문화'와 안전의 결합

오일근 대표는 회사 안전경영 메시지에서 실천하는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을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롯데건설의 상호존중문화로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존중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안전과 직접 연결하는 메시지를 경영진이 발신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I Respect U' 안전문화 운동도 추진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근로자를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대해야 한다는 직무 철학과 부합합니다.

4-4. 안전(EHS/HSE) 직무가 선호하는 인재 특성

건설 안전 직무가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인재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안전 최우선과 생명존중 마인드로, 롯데건설 안전보건방침의 핵심 이념인 생명존중과 부합합니다. 둘째, 현장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안전관리자는 감시자가 아니라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반장, 근로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사령탑이므로 설득과 소통 능력이 필수입니다. 셋째, 다부서·다주체 협업 역량으로, 공사팀, 품질팀, 협력업체, 발주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율해야 합니다. 넷째, 원칙 준수와 현실의 균형감각입니다. 공기 압박이나 자재·인력 가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대책은 현장에서 힘을 잃으므로, 법규 준수와 현장 실행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데이터 기반 위험성평가 역량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상중하로 추정하고 근원적·공학적·관리적·개인보호구 순으로 대책을 설계하는 분석력입니다. 여섯째, 스마트 안전기술 친화성으로, AI CCTV, IoT, 드론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역량입니다.

4-5. 도메인 특성에서 도출되는 인재 요건

안전 직무의 업무 특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인재 요건이 있습니다. 안전 업무는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모든 의사결정에 우선하는 영역이므로, 공기나 비용 압박 앞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소신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협업 빈도가 매우 높아 갈등 상황을 조율하는 대인 역량이 중요하며,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비상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위기관리 능력도 요구됩니다. 장기 프로젝트 주기 속에서 동일한 위험요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환류하는 문서화·데이터 관리 습관 역시 성과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롯데의 4대 핵심가치 중 Respect와 Challenge가 안전 직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으로, 롯데의 핵심가치 중 Respect(원칙 준수와 신뢰)와 Challenge(본질 집중)는 안전 직무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원칙을 지키되 현장을 움직이는 소통으로 안전을 실천한다는 메시지는 회사 인재상과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축이 됩니다.

5장: 직무 분석

5-1. 건설사 안전관리 직무의 법적 근거와 핵심 역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해 여러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과 실시에 대한 보좌·지도, 사업장 순회점검과 지도·조치 건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조언, 산업재해 원인조사·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안전인증·안전검사 적격성 검토, 안전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사금액 50억~120억원(토목은 150억원 미만)은 안전관리자 1명 선임(겸임 가능),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 이상)은 전담 선임이 의무입니다. 이 법적 기준은 안전관리자의 채용 수요가 공사 규모와 직결됨을 의미합니다.

5-2. 업무 주기별 활동 — 하루, 한 달, 1년

하루 단위로 작업 전 안전미팅(TBM), 위험예지활동, 순회점검, 작업허가 확인, 안전조회가 핵심입니다. 롯데건설은 '일일안전 CYCLE'(안전조회, TBM, 위험예지, 안전교육, 안전점검, 피드백)을 운영합니다. 한 달 단위로 노사 협의체 회의, 정기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실시, 협력업체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집행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1년 단위로 연간 안전보건 목표와 계획 수립, 정기 위험성평가, 비상대응훈련, 안전문화 캠페인, 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심사 대응이 포함됩니다. 안전 직무는 이처럼 일일 현장 대응부터 연간 시스템 운영까지 시간 축이 겹겹이 쌓인 구조를 가지므로, 단기 집행력과 장기 기획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5-3. 이해관계자 맵 — 내부와 외부

내부 이해관계자는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팀과 공무팀, 품질팀, 본사 안전보건관리본부와 CSO(최고안전책임자), 경영진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

(수급인)의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근로자, 고용노동부(근로감독), 안전보건공단(KOSHA, 점검과 컨설팅), 발주처, 감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입니다. 원·하청 구조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되 도급인이 수급인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현장 특성을 잘 아는 중소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모호해 원청이 책임을 떠맡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2025년 5월 원청 무죄 판결은 이 책임 분배 논쟁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전관리자는 이 복잡한 책임 관계의 한가운데서 조율자 역할을 맡습니다.

5-4. 필요 역량 — 기술·지식과 소프트스킬

기술·지식 측면에서 가장 기본은 자격입니다.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또는 산업기사)가 법정 선임 자격의 토대이며,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재해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 점검과 개선, 유해·위험 방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법규 지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2025년 1월 2일 시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이 필수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미 실시 과태료,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 현황 공시가 도입되므로 최신 법규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핵심 실무는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과 실행), 안전점검, 사고조사, 안전교육입니다. 소프트스킬로는 현장 설득력, 다부서 협업, 기록과 문서화 역량, 데이터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안전 직무는 기술 자격이 진입 요건이지만, 실제 성과는 사람을 움직이는 소프트스킬에서 갈린다는 점이 도메인의 특징입니다.

5-5. 성과 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건설 안전 직무의 성과 지표는 결과지표와 선행지표로 나뉩니다. 결과지표(후행지표)로는 재해율(임금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비율), 도수율(100만 근로시간당 재해건수), 강도율, 근로손실재해율(LTIFR, 100만 근로시간당 근로손실건수), 총기록재해율(TRIR), 사고사망만인율, 무재해 기록(무재해 일수와 배수)이 있습니다. 선행지표로는 안전점검 이행률, 위험성평가 실시율, 안전교육 이수율, 아차사고 발굴 건수, 시정조치 완료율, 스마트 안전장비 가동률이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임직원 총기록재해율(TRIR) 0%, 6대 사고성 재해 예방을 통한 사고사망만인율 ZERO를 관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도수율, 강도율, LTIFR의 연도별 구체 수치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고서의 SOCIAL DATA 섹션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직무의 평가는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를 입증하는 후행지표보다, 위험을 미리 줄였음을 보여주는 선행지표 관리 역량에서 점점 더 무게가 실리는 추세입니다.

5-6. 롯데건설의 안전 시스템

롯데건설은 CSO 주관 안전보건관리본부(2023년 11월 안전보건경영실에서 승격)를 운영하며, 분기 1회 안전보건임원협의회를 엽니다. 2025년에는 CSO 산하에 '안전혁신부문'을 신설하고 PSS TFT(안전 패러다임 전환, PC·OSC 공법), AGI TFT(범용 AI),

기술안전지원팀을 두었습니다. 핵심 시스템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성평가 AI 시스템'으로 2022년 롯데이노베이트와 개발했으며 통합위험지수 70종과 연 9만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둘째, '안전상황센터'로 2023년 10월 개관해 AI 연계 통합 영상관제를 수행합니다. 셋째, 그룹 차원의 '롯데세이프티'(2017년 도입)입니다. 안전보건 관리비 예산은 전년 대비 27% 늘렸습니다. 안전상황센터의 사고 예방 실적은 자료에 따라 추락사고 249건 사전 방지(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총 180여 건의 재해 예방(2024년 7월 언론 보도)으로 다르게 집계되므로, 인용 시 정의(추락사고 한정인지 전체 재해인지)와 출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KOSHA-MS(2023년 7월)와 ISO 45001(2024년 5월)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7. 대표 업무 시나리오 — 고층 아파트 골조공사 추락위험 관리

가상의 워크플로우를 통해 안전 직무의 하루를 그려보겠습니다. 작업 전날에는 위험성평가 AI시스템으로 다음 날 고소작업의 위험지수를 확인하고 위험성이 '상' 등급인 작업을 식별합니다. 작업 당일 아침 TBM에서 해당 협력업체 반장과 근로자에게 안전대 체결,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점검사항을 전파합니다. 작업 중에는 순회점검으로 안전난간 일시 해체나 작업발판 흔들림 같은 불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 위치, 조치책임자를 기록하며, 안전상황센터가 AI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위험을 발견하면 작업중지와 시정요청을 요청하고 동선 분리나 작업순서 변경 같은 현장 개선을 진행합니다. 작업 종료 후에는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아차사고 사례를 공유해 다음 날의 위험을 미리 줄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안전관리자가 데이터, 소통, 현장 개선을 하나로 엮어 사고를 예방하는 직무임을 보여줍니다.

5-8. 안전 직무의 전망과 롯데건설의 절실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과 2026년 감독 강화, 그리고 '산재와의 전쟁' 국면에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해 인력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대형사로의 인력 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직무는 문서관리자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 운영자로 역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명의 사망자라는 평판 부담을 안고 있고, 2026년 들어 어렵게 재무 반등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안전사고로 인한 과징금이나 신인도 훼손이 회복 흐름을 꺾을 수 있는 민감한 시점입니다. 같은 시기 일부 경쟁사에서는 사망사고 후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롯데건설의 안전 직무는 전략적 중요성과 경영진의 관심이 특히 높은 직무입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로, 안전관리자의 본질이 단속이 아니라 위험요인의 사전 파악과 사람을 움직이는 데 있다는 직무 철학을 위험성평가 4단계(파악, 추정, 결정, 대책)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롯데건설의 위험성평가 AI시스템과 안전상황센터 같은 스마트 안전 인프라에 본인의 데이터 역량을 어떻게 더할지 제시하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겪은 사망사고 부담을 직접 언급하기보다, 스마트 안전기술과 현장 실행력을 결합해 무재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로 풀어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26년 건설산업 7대 이슈 —

<https://www.cerik.re.kr/uploads/report/3037/건설동향브리핑%201038호.pdf>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26 건설수주 전망 —

<https://www.cerik.re.kr/uploads/report/3020/건설동향브리핑%201030호.pdf>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2026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발표 —

[https://www.ricon.re.kr/board/view.php?](https://www.ricon.re.kr/board/view.php?no=5993&group=alim&page=alim_notice&cate=19)

[no=5993&group=alim&page=alim_notice&cate=19](https://www.ricon.re.kr/board/view.php?no=5993&group=alim&page=alim_notice&cate=19)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월간건설시장동향 —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201216>

KDI —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 —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0523)

[ac=0000170523](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0523)

글로벌이코노믹 — 2026년 건설 및 엔지니어링산업 전망 —

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5/12/2025120808200841335e857d010_1

더팩트 — 산재와의 전쟁 이후 1분기 사망자 감소 —

<https://news.tf.co.kr/read/economy/2314493.htm>

뉴시스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 상위 10개사 중 건설사 7곳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1_0003274978

대륜법률 뉴스레터 — 2025년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 —

<https://www.daeryunlaw.com/newsletter/news/180>

노동법률 — 중처법 시행에도 영세 건설현장 사망 증가 —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740

KIS Rating — 롯데건설 신용평가 의견 — [https://kisrating.com/fileDown.do?](https://kisrating.com/fileDown.do?menuCd=R8&gubun=2&fileName=rs20251224-13.pdf)

[menuCd=R8&gubun=2&fileName=rs20251224-13.pdf](https://kisrating.com/fileDown.do?menuCd=R8&gubun=2&fileName=rs20251224-13.pdf)

인베스트조선 — 롯데건설 신용등급 A로 하향 —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6/18/2025061880074.html

인사이트 — 롯데건설 1분기 영업이익 504억, PF 2조원대 —

<https://www.insight.co.kr/news/554376>

파이낸셜신문 — 롯데건설 1분기 영업이익 13배 급증 —

<https://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02>

뉴스핌 — 수익성·재무 개선 롯데건설 1분기 실적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515001222>

네이트(스마트비즈) — 롯데건설 PF 우발채무 3.39조 —

<https://news.nate.com/view/20260523n04716>

the bell — 롯데건설 7000억 신종자본증권 발행 배경 —

[https://m.thebell.co.kr/m/newsview.asp?](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4&newskey=202511281205407920105772)

[svccode=04&newskey=202511281205407920105772](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4&newskey=202511281205407920105772)

건설워커 — 2025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TOP100 —

<https://m.worker.co.kr/subpage/mbuilding.asp>

포쓰저널 — 2025 시평 순위 —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887)

[idxno=2091887](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887)

머니투데이 — 롯데그룹 CEO 20명 교체, 오일근 내정 —

<https://www.mt.co.kr/living/2025/11/26/2025112614403746885>

인사이트코리아 — 오일근 르엘 앞세워 성수4지구 수주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976>

한국경제 — 롯데건설 7000억 확충, 성수4지구 집중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30831i>

글로벌이코노믹 — 대우·롯데 성수4지구 수주전 — [https://www.g-enews.com/article/Real-](https://www.g-enews.com/article/Real-Estate/2026/02/202602101049565523514e0091f6_1)

[Estate/2026/02/202602101049565523514e0091f6_1](https://www.g-enews.com/article/Real-Estate/2026/02/202602101049565523514e0091f6_1)

CEOSCOREDAILY — 대우·롯데 성수4지구 격돌 —

<https://m.ceoscoredaily.com/page/view/2026012214514510958>

롯데건설 —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PDF) —

https://www.lottecon.co.kr/UpFiles/AttachFile/SR/lottecon_SR_kor_full_2024.pdf

롯데건설 — 안전경영 페이지 — <https://www.lottecon.co.kr/sustainability/safetys>

안전신문 — 롯데건설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안전 —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085>

굿모닝경제 — 롯데건설 안전혁신부문 신설 —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523>

심층분석보고서: 26상_롯데건설_안전

롯데 — 핵심가치(공식) — <https://www.lotte.co.kr/about/value.do>

롯데건설 채용 — 인재상 — <https://career.lottecon.co.kr/aboutus/talents>

롯데그룹 채용 — 2026년 상반기 신입 채용(안전 직무 포함) —
<https://recruit.lotte.co.kr/>